

전남도, 치매 통합서비스 정착...2025년까지 977억 투입

복지부와 치매 관리 사업 추진 현장 합동 점검...전남형 사업·스마트 기술돌봄사업 등 지원 건의

전남도가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가 안심하며 지내도록 예방·치료·돌봄 등 전남형 치매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 정착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은 65세 이상 전국 치매노인 인구 99만8000명 가운데 5.6%(5만6000명)를 차지하고 있다. 치매 노인 유병률 역시 전국 평균 10.5%를 상회하는 12.2%에 달해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영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하태길 노인건강과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함께 보성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전남형 치매관리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전남도는 전남형 치매 돌봄사업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7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 예방을 위해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조기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치매 검사비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치매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당초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를 140%로 확대하고, 1인당 월 3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치매안심관리사 양성, 환자·가족 안심캠프, 이동편의 서비스도 전 시·군에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치매안심병원을 기존 1개에서 3개소로, 치매안심마을을 기존 106개소에서 125개소로 확충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날 치매 예방·관리사업 현장을 찾은

영민섭 노인정책관에게 전남형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고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국내 부족한 치매연구 핵심시설 구축을 위한 국립치매연구소 설립, 홀로 사는 저소득 어르신 등을 위한 스마트기술 활용 어르신 돌봄 지원, 도내 화장 시설 확충을 위한 장사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 등도 추가로 요청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광역치매센터와 22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등과 함께 전남 특화형 치매 돌봄사업 추진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행복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여성친화도시 시책 연구모임' 출범

전남여성성평등센터(전남여성가족재단)가 지난 24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3기 전남 여성친화도시 시책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 출범식을 가졌다.

여성가족부 지정 전남여성성평등센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실행을 지원하고 여성주류화 제도 운영 지원,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사업, 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지역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을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2024년 기준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된 지자체는

전국 104개로, 전남은 여수시 등 8개 시군이 지정돼 있다.

연구모임은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주체인 행정, 의회, 주민, 전문가, 활동가가 함께 모여 전남형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발굴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정인경 전남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이 '성평등한 전남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한 뒤 50여명의 참여자들이 전남의 성평등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을 펼쳤다.

연구모임은 4월부터 8월까지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 계약심사제 도입 16년...1조2천억 예산 절감

역량 강화 연찬회서 노하우 공유...지역 제품 우선구매 홍보관도

전남도가 2008년 도입한 계약심사제를 통해 그동안 총 1조2000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26일까지 이틀간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도·시군 공무원, 용역·사공회사, 건설 자재 생산기업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계약심사 연찬회'를 갖고 지역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홍보 전시관도 운영했다.

연찬회는 2008년부터 도입된 계약심사 제도의 축적된 기법을 공유하고 최근 공사원가 산정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남도는 매년 계약심사 연찬회 개최 시 지역 기업 생산제품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59억원의 자재구매가 이뤄졌다.

전남도는 2008년 이후 전남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발주 전 원가의 적정성을 검

토하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 총 1조236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3212개 제품 1548억원의 도내 제품 구매실적을 올려 효율적 재정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연찬회는 도, 시군에는 직원 업무역량 강화로 부실시공 예방과 객관적 재정 운영의 초석이, 도내 기업에는 판로 확대를 위한 좋은 홍보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계약심사 담당자와 지역 기업인의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여수·광양항 물동량 증대 적극 대응

도, 발전추진협의회서 대책 논의 자동화부두 구축 등 협력키로

전남도가 지난 2018년 241만TEU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인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및 여수·광양항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박창환 정무부지사,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 황학범 여수광양항만공사 경영부사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광양항 발전추진협의회를 지난 29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개최했다.

〈사진〉 협의회는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방안, 여수·광양항 활성화 건의사항, 홍보 및 협조사항, 자율토론회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인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변화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유관기관별로 물동량 감소 원인 및 대책, 향후 계획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광양항 자동화부두 구축사업, 율촌융복합물류단



지 조성사업, 1종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제도 개선, 광양항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구축 등을 위해 기관별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여수·광양항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 처리실적 1위 항만이자, 총물동량 처리실적 2위 항만으로서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박창환 부지사는 "여수·광양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육성 전략을 만들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회의에서 다룬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사업을 적극 검토해 여수·광양항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광양항 발전추진협의회는 여수·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여수·광양항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 토대가 될 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협력기구다. 위원장은 전남도 정무부지사이며, 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제농업박람회 250만달러 수출 계약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25일까지 이틀간 전남도농업기술원 청년창업터운과 순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중국 바이어 초청 농·수·축산 가공식품 수출상담회에서 25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상담회에는 중국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칭다오 지역의 비료생산기업, 건강식품판매기업 등 구매력이 큰 7개사 10여 명의 바이어와 보성·완도·고흥·순천·강진 지역의 25개 업체가 참여했다. 중국 인플루언서의 라이브커머스 방송도 동시에 진행해 전남 농식품을 중국 전역으로 방송 판매했다.

순천지역의 모강기합동조합이 내놓은 모강기 위터는 이번 현장에서 20피트 컨테이너 물량의 2차 수출계약이 이뤄졌고 추후 3년간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전남도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곡물당, 다이어트 젤리, 제로칼로리 등 체중조절용 식품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고 수출 품목 발굴과 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제농업박람회 관계자는 "전남 특산품의 현지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음 기자 dok2000@kwangju.co.kr

도, 사회적경제 주민 맞춤형 교육 운영기관 모집

전남도가 오는 5월 3일까지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를 위한 '2024년 사회적경제 주민 맞춤형 교육'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최근 사회적 경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2300개에 이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기는 등 전남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는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발굴해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남지역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 기관 및 관련 비영리법인,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업화 분야를 중심으로 5개 기관을 선정해 기관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지음 기자 dok2000@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